

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박다홍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인기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 씨가 지난 수십 년간 모은 100억원 대 재산을 친형이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군가에게 100만원을 떼었다고 해도 속상할 일인데 만일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 금액'을 떠나 '가해자' 탓에 속이 뒤집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참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박씨에게 위로가 돼주는 것이 바로 '반려묘'다. 3월27일 MBN 예능 프로그램 '속 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한 박씨는 반려묘와의 반려 생활을 소개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8월 한 낚시터에 갔다 아기 길냥이를 만났다. 그는 평소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예뻐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자신을 쫓아오는 고양이를 외면하지 못했다. 고양이가 아파 보여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자신이 키울 수 없어 치료 후 다른 곳에 입양을 보냈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특히 그가 TV에 나오면 알아보고 달려가 TV를 끊을 정도였다. 결국 고양이를 집

에 데려온 그는 '박다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동거를 시작했다. 요즘 박씨는 다홍이에게 큰 위로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제가 태어나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잠을 못 자고 있으면 다홍이가 침대로 와서 제가 잘 때까지 눈을 깜빡깜빡해 준다"고 전했다. 박씨는 다홍이를 향한 애정을 듬뿍 담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함께 출연 중이다.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박수홍씨가 다홍이를 구조한 줄 알죠? 다홍이가 박수홍씨를 구조한 거예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울컥한 박수홍은 눈물을 펄펄 쏟았다.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박씨에게 하나뿐인 위로이자 마지막 희망이 된 다홍이 사연은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 어떤 존재이고, 무슨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그 존재가 반려견이 아닌 반려묘라는 데 주목할 만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양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 팽배했다. "재수 없다" "복수를 한다" 등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고양이가 수백, 수천 년 동안 반려동물로 사랑받아온 외국과 180도 달랐다. 1980년대 일간지에는 '고양이가 눈을 활짝 열어 어린이가 실명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돼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고착화했다. 비슷한 시기 보신탄용으로 사육되던 도사견에게 몰려 어린이가 죽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났으나 오히려 당시 여론은 고양이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 뿌리 깊은 '고양이 혐오'가 이를 부추킨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들어 '페르시아' '진질라' 등 외국인 장모 반려묘가 하나둘 수입되며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서서히 고양이도 반려동물(당시에는 애완동물)로 떠올랐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안 블루'를 필두로 한 단모 반려묘까지 국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경기 침체 여파로 유기동물이 급증하면서 길냥이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돕기

에 나섰다. 물론 급증하는 유기묘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2010년대 국내에 불기 시작한 '동물권' 보호 움직임 속에서 길냥이는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여기에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고양이에게 우호적인 젊은 세대와 반려견을 키우기 부담스러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반려묘가 인기를 끌며 2010년대 중반 이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애묘인들은 다홍이를 '개냥이'(개와 같은 성격을 가진 고양이)를 넘어 '냥또'(고양이 로또)라 일컬으며 박씨를 부러워하고 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목줄을 매고 산책하는 고양이' '웃 잘 입는 고양이' '사워할 때 순응하는 고양이' 등 세상 모든 애묘인이 만나고 싶어 하나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묘연'(貓緣)을 보여준 데 따라서다. 다홍이는 외국인 고급 품종도, 펫숍에서 고가에 입양한 것도 아닌 구출된 길냥이다. 그것도 불행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터부시되던 '검은 고양이'다. '은혜 깊은 박다홍이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모두 없애고, 길냥이 입양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수의사이기 이전에 길에서 구출한 반려묘(가름이·암컷)와 1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사'로서 간절히 바란다.

기고

가습 설레는 봄날 화재예방을 실천하자

작년 이즈음 4월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장 현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8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공장 화재에 대한 관계인의 관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공사장 환경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나의 소견은 공사장 화재의 참사는 대중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고 본다. 이를 증명 하듯 지난 3월 22일 모 지역의 공사장에서 용접 등을 하며 튀는 불씨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지역 소방력이 대거 투입되어 약 2시간만에 화재가 진압되었다. 다행히 공사 인력은 안전히 피난하여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이렇듯 공사장에서 용접·절단·연마 중에 화재는 지속 발생하는 추세이다. 이는 공사장 뿐만 아니라 용접 등을 실시하는 공장 사업장(축사 등)에서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용접 및 용단 작업시의 불꽃은 넓은 반경으로 비산되고 그 불씨는 축열로 인해 상당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다시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불티 온도 : 1,600~3,000℃)이에 따라 공사장 관계인에게 아래의 안전수칙을 안내하니 적극 실천하

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용접 작업 전, 용접작업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작업장 인근에 준비하자!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작업 전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여부를 사전 통보해 화기 작업 간 주변 가연물물 사전에 제거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비산하는 불티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는 비상 연락수단을 확보해 만일에 사태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에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30분 이상 확인해 비산한 불티가 완전히 꺼진 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철수해야 한다. 공사장에는 많은 공사인력과 장비,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원들이 집약 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산출하기도 어려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공사 관계인의 적극적인 예방과 실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소방서도 연중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 적발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천석호/영암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하자

불법무기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총

포,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공 및 모의총포, 불법개·변조 무기류로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고

총포·화약류 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추후 실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화약법 개정(19.9.19.시행)으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자에게 검거 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불법무기류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최판호/국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